

## 2015 9.13 연중 제 24 주일

제 1 독서 : 이 사 야 50,5-9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맡겼다.>

제 2 독서 : 야 고 보 2,14-18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복 음 : 마 르 코 8,27-35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오늘** 독서와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실상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직자이건 수도자이건 평신도이건, 하느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고통과 행복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삶입니다. 즉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이 얼마만큼 있고 행복이 얼마만큼 있고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항상 행복이 지속되는 삶입니다. 그것은 베드로 성인도 마찬가지 이었습니다. 성인이 주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 하였을 때에 그 베드로성인의 머리에는 아직도 주님께 대한 무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즉 성인이 추구하는 구원자는 힘이 있어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없애주는 분이시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일반 이스라엘 민족이 오래동안 바라고 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많은 신자들 특히 우리 한국 신자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기복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즉 너무나 인간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꾸짖으십니다.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통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그 고통들은 사실은 우리가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있는 도구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도구가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살다보면 오히려 우리를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살려한다면 하느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인은 바로 조물주를 찾아 가는 사람들 말합니다. 즉 이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느님을 찾아 가는 것입니다. 그 하느님을 찾아가는 방식이란 바로 우리를 하느님께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코를 꿰어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그 분께 모든것을 의탁하여 매어 가는 삶입니다. 과연 우리각자 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하느님 아버지께로 이끄는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가 몸으로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때에 그 고통과 어려움을 넘어 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는 방법은 그냥 말로만 ‘ 믿습니다. 믿습니다.’ 가 아니라 오늘 야고보성인께서 말씀 하시듯이 실천이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믿고 있다면 내 고통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어려움과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독서에서 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왜냐?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려는가?  
우리 함께 나서 보자.  
누가 나의 소송 상대인가?  
내게 다가와 보아라.”**

사제로 살아 가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나 하면 자기의 삶을 봉헌하고 살면서도 많은 험담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험담에 다 신경을 쓰다보면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살면서 듣게되는 험담도 힘드시겠지만 사제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못 견딥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나아 갈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사제들 뿐만이 아니라 평신도 여러분에게도 하느님께서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런분이 지금도 계시다면 한번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을 잘 들여다 보십시오. 나의 마음을 이 세상에 두고 사신다면 그런 험담들을 이겨 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억울한 험담이 나에게 들려 오더라도 하느님께 의지하고 산다면, 그래서 그분이 정의이시고, 그 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또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우칠때에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험담으로 나를 헐뜯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실 것이고 또한 성령께서 큰 위로를 선물로 받게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를 얻고자하는 기복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또 영생의 삶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실천 하십시오. 이 세상의 것에서 마음을 돌려 하느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지금 보다는 훨씬 달라지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본기도

아버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니,  
가련한 저희를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도우시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고백하며,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범을 따라 살아,  
참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

제 1 독서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맡겼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0,5-9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려는가?  
우리 함께 나서 보자.  
누가 나의 소송 상대인가?  
내게 다가와 보아라.  
보라,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단죄하는 자 누구인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6(114),1-2.3-4.5-6.8-9(◎ 9)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 나는 주님을 사랑하네. 애원하는 내 소리 들어 주셨네.

당신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니,

나는 한평생 그분을 부르리라.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에우고, 저승의 공포가 나를 덮쳐,

고난과 근심에 사로잡혔네.

나는 주님의 이름 불렀네.

“주님, 부디 이 목숨 살려 주소서.”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 주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신 분, 우리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네.

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

가엾은 나를 구해 주셨네.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 당신은 죽음에서 제 목숨을 구하셨나이다.

제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고,

제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 제 2 독서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2,14-18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실천이 있소.”  
나에게 실천 없는 그대의 믿음을 보여 주십시오.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 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복음환호성

갈라 6,14 참조

◎ 알렐루야.

○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 알렐루야.

## 복음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27-35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